

리딩 리서치의 5월 장세 긴급점검

< 미국 매크로 및 실적 변수 중심으로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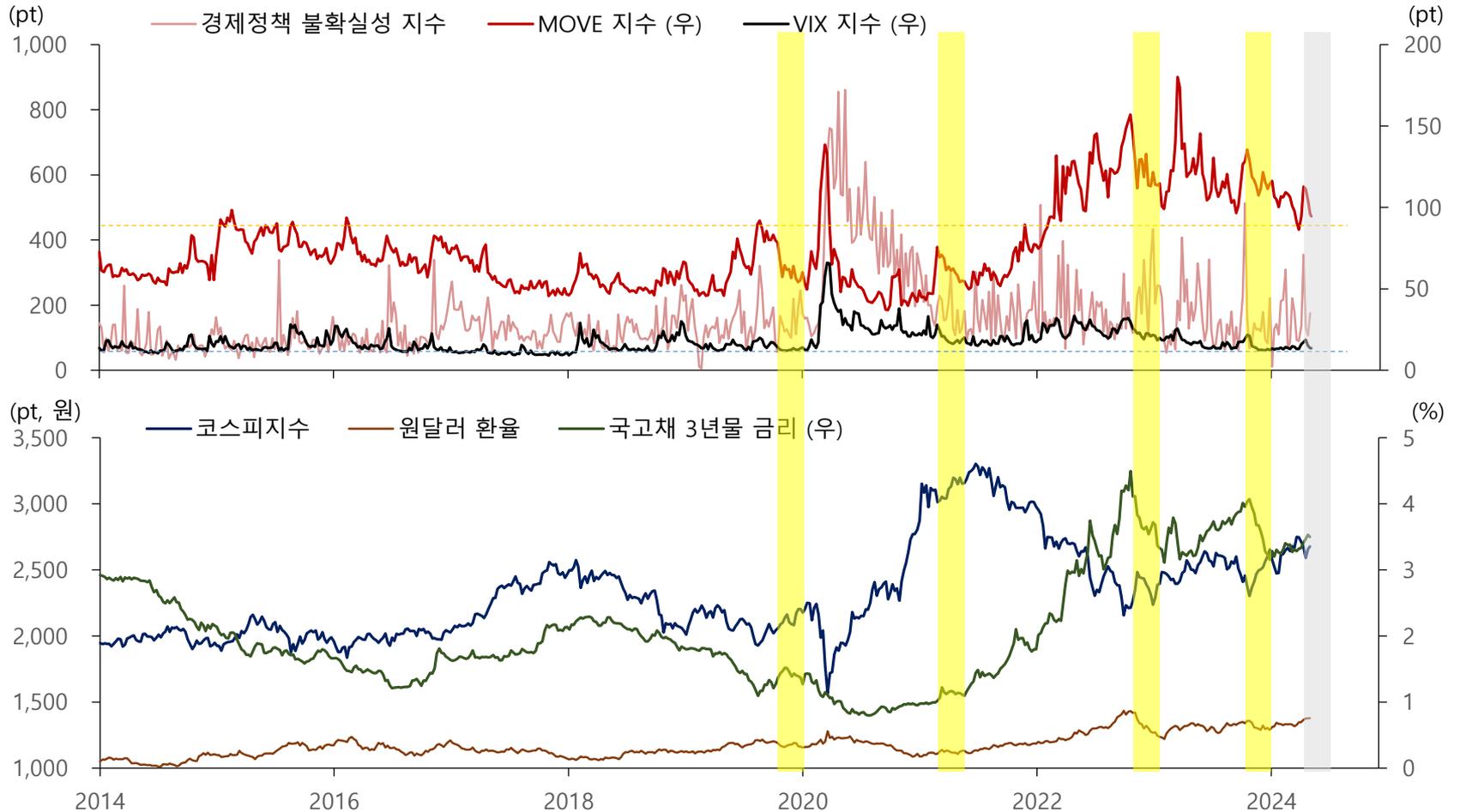
리딩투자증권 곽병열

2024.05.08

1 변동성 지수, 의미 있는 개선흐름 포착

- VIX 지수(주식)는 역사적 최저점 근접 & MOVE 지수(채권)도 연중 최저점 근접
 → 경제정책 불확실성 개선 → 이를 통한 금융시장 변동성 완화는 시장 할인율의 개선 가능성 암시

VIX, MOVE 지수의 안정화 → 변동성 완화는 곧 기존 금융시장 디스카운트 완화 시그널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2 미국 경제서프라이즈 0선 이탈, 전망치에 못 미치고 있다

- 미국 경제서프라이즈 지수(실제치와 전망치의 괴리)는 최근 0선 이탈
 - 최근 ISM, 고용지표 등이 전망치에 미달하면서 경제서프라이즈 지수는 4개월 만에 0선 이탈
 - 연초 이후 2024년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의 큰 폭 상향조정에 대한 반작용 포착된 것으로 해석
- 분기별 실질GDP(전분기비연율) 상 1Q24 1.6% → 2Q24 1.7%, 3Q24 1.3%로 Slow-Down 예상
 - 추가적인 동행 지표의 둔화 확인 과정을 통해 시장금리의 후반영 가능성에 주목

경제서프라이즈 0선 이탈 vs. 시장금리 반영 가능성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경제 전망치 상향조정 vs. 컨센서스 하회로 조정 압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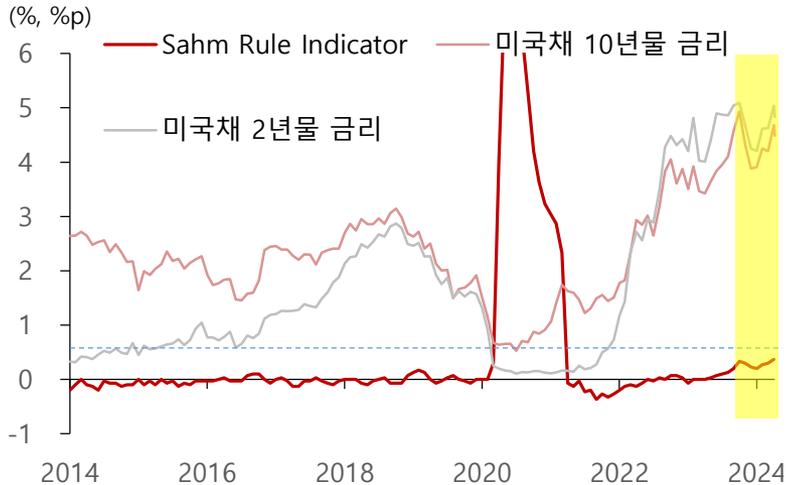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3 4월 고용: Fed의 예상경로로 진행 중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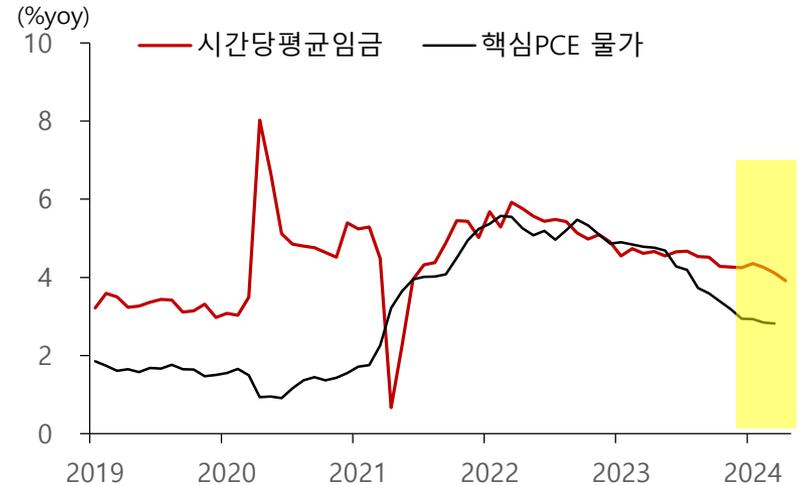
- 4월 실업률이 3.9%(예상치 3.8%)로 발표되면서, 'Sahm Rule Indicator'(=최근 3개월 실업률 이동평균- 12개월 최저점)는 0.37%p로 21.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
 - Trigger 0.5%p에 근접 중, 과거 트러거 발동 시 안전자산 선호현상 가속화
 - 현 추세 진행 시 여름 중에 발동 가능성 → 확인 후 9월 FOMC, 첫 기준금리 인하 예상
- 'Stick Inflation'의 주요인인 '평균임금'의 완만한 하락세 확인하며 4월 물가 압력의 완화 가능성

실업률의 완만한 상승 vs. 경기둔화 시그널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시간당평균임금, 핵심PCE 물가 추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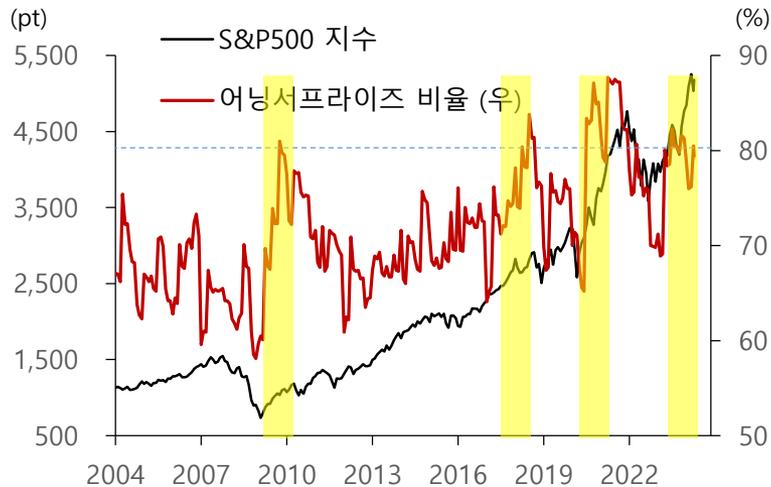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80% 수준의 어닝서프라이즈 국면, 큰 폭의 조정 가능성은 제한적

- 2분기 어닝시즌 중 S&P500 기업군의 어닝서프라이즈 비율은 80%대 전후로 높은 수준 유지 중
→ 지난 20년 래 80% 전후의 어닝서프라이즈 국면에서 뉴욕증시는 상승흐름이 유지되었고, 큰 폭의 가격조정은 관찰되지 않았음
- 이러한 어닝서프라이즈 행진은 EPS(12개월예상) 상향조정을 이끌면서 S&P500의 PER(12개월예상)은 20배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. 과거 5년 평균값은 19.3배와 근접한 수준으로 고PER 논란은 제한적임

80% 수준의 어닝서프라이즈와 뉴욕증시 반응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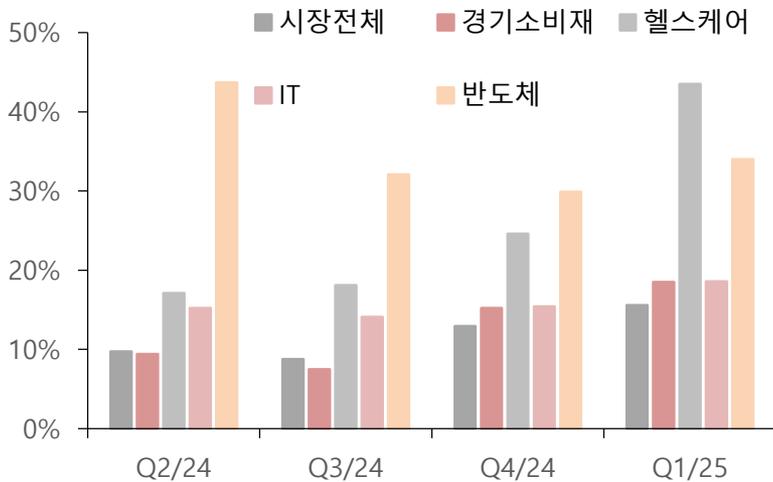
S&P500 PER, EPS 추이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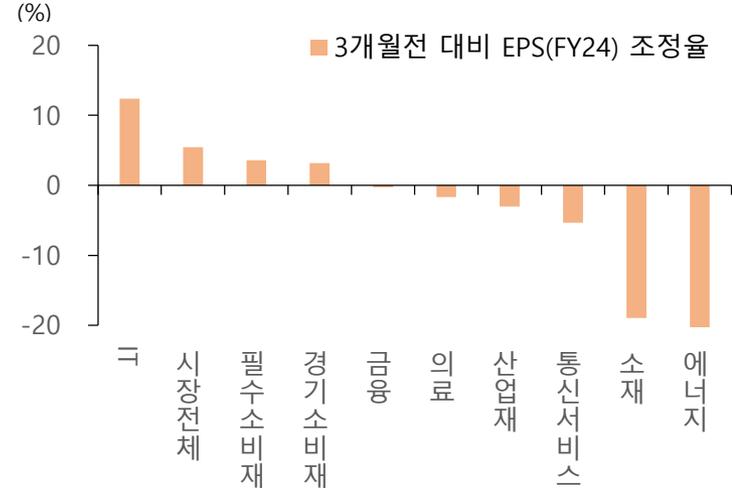
- 향후 3개 분기기준으로 시장전체(S&P500)의 이익 증가율(전년동기비)을 초과하는 업종은?
→ IT(반도체), 헬스케어(바이오텍), 경기소비재(소매) 등이 주도
→ 미국의 이익상향 주도 업종은 관련된 국내 수출주와도 중첩되고 있어서 이익동조화 가능성↑
- 국내 주요 업종의 3개월전 대비 EPS(FY24) 조정율을 살펴본 결과,
→ 미국과 유사하게 IT, 경기소비재 등에서 공통점 발견됨. **미국과의 업종별 이익동조화 가능성을 감안한 IT(반도체), 헬스케어, 경기소비재(자동차) 수출 기업에 대한 중기적인 비중확대 전략 권함**

FY24 미국 기업실적을 견인하는 업종



자료 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국내 주요 업종의 3개월전 대비 EPS 조정율



자료 : Dataguide, 리딩투자증권

본 자료를 작성한 금융투자분석사는 동 자료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- 본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자에게 사전에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
-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정보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, 작성된 내용은 당사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를 기반으로 한 것이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. 그러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최종결정을 하시기 바라며,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

- 본 자료의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 있으며, 무단복제, 변형 및 배포될 수 없습니다.